

파생명사의 의미 형성 원리

— 구문 형태론적 접근 —

차 준 경*

-
1. 서론
 2. 문제제기
 3. 파생어와 구문 형태론
 4. 국어의 ‘-음’, ‘-기’ 파생 명사
 5. 결론
-

1. 서론

이 논문은 국어의 용언 파생명사(Deverbal nouns)의 의미 형성에 대하여 인지언어학의 구문 형태론(Booij 2010)의 관점을 적용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어의 파생 명사 중 접미사 ‘-이’, ‘-음’, ‘-기’에 의해 파생된 명사를 대상으로 하여 파생 명사의 의미 형성의 원리를 밝힌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에서 명사로 품사 범주의 전환이 이루어졌으

* 고려대학교.

며 파생어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실현된다.

그동안 국어 연구에서 파생어 연구는 접사의 의미와 기능을 구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파생어의 의미 현상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접사 중심의 연구 방법을 대신하여, 이 연구에서는 여기와 파생어와의 의미 관계를 통해 파생어의 의미 형성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인지 언어학의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을 도입하여 파생어의 의미 형성을 설명할 것이다. 구문 문법의 관점에서 파생어도 일종의 구문(Construction)을 형성하여 형태와 의미의 쌍을 이룬다. 또한 파생어 단어형성패턴에서 추상적 스키마(abstract schema)¹⁾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 스키마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고 새로운 단어의 의미도 생성되는 것이다.

특히 국어의 ‘-이’ 파생 명사에서 ‘고기잡이’, ‘돈벌이’와 같이 단어의 형태 구조와 의미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고기잡이’, ‘때밀이’ 등이 행위 또는 사람의 다의로 해석될 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만한 방법론이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위 구문 형태론[construction morphology(Booij 2010)]의 접근 방식으로 파생어의 의미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 2장에서는 기존의 파생어 접사 연구인 형태소 기반 연구 방식, 항목 배열 방식의 접근 방식을 비판한다. 항목 배열 방식으로는 파생어의 다의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3장에서는 구문 형태론을 소개하며 이 이론이 국어의 파생어의 의미 형성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국어의 ‘-음’, ‘-기’ 파생 명사의 의미 형성 원리를 제시한다.

1) 스키마 개념은 인지과학에서 일반적인 개념이다.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 개념을 표상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이다. “a data structure for representing the generic concepts stored in memory”(Rumelhart 1980: 34, Booij 2010: 5 재인용).

2. 문제제기

국어 파생어 연구에서 파생어의 의미는 접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즉,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와 접사의 의미의 합으로 간주되었다. 대표적으로 송철의(1992), 하치근(1993), 김창섭(1996), 구본관(2002) 등이 있다. 특히 구본관(2002)은 파생접사의 의미도 기본 의미와 파생의 미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이’의 기본 의미를 ‘~하는 행위 또는 사건’으로 두고 이 기본 의미에서 ‘~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나 ‘~하는 물건 또는 도구’의 의미가 파생되는 것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다양한 ‘-이’ 파생명사의 의미 중 어느 하나를 기본 의미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하치근(1993)에서도 파생접사 ‘-이’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동사 어기에 결합하여 ‘~하는 사람’을 뜻하는 명사를 파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를 사람 접미사, 사물 접미사, 행위 접미사, 도구 접미사 등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파생어가 단일한 의미만을 갖지 않으므로 접사에 의해 파생어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명사파생접미사 ‘-이’는 다양한 부류의 명사를 형성하며 문맥에 따라 다의로 해석된다. 즉, ‘-이’ 파생명사는 사람, 사물,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이를 파생 접미사 ‘-이’의 다의성으로만 풀이할 수 없을 것이다.

(1)

신문-팔이新聞—「명」길에서 신문을 파는 일. 또는 그런 사람. ㉠{신문팔이} 소년/{신문팔이로} 나서다/{신문팔이에게} 신문을 사다/
그는 {신문팔이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 나갔다. §신문팔이-하다
#§「동」=>신문팔이.

(2)

소매-치기「명」 남의 몸이나 가방을 슬쩍 뒤져 금품을 훔치는 짓.
또는 그런 사람. 『{소매치기를} 당하다/{소매치기가} 복잡한 지하
철 안에서 핸드백을 털다가 잠복근무 중인 형사에게 붙잡혔다.』

위 (1), (2)의 ‘신문팔이’와 ‘소매치기’ 등은 <표준사전>에서 ‘어떠한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등으로 기술되었다. 이와 같이 다의로 풀이되는 ‘신문팔이’, ‘소매치기’ 등에서 파생어의 다의 의미가 각각 별도의 접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국어사전의 접사 ‘-이’의 뜻풀이를 살펴보자.

(3)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ㄱ. ‘-이’²⁷⁾

①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렇게 하는 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별이/ 풀이/ 고기잡이/ 봄맞이/ 꽃꽂이/ 가슴앓이

②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대상’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먹이/ 구이/ 귀걸이/ 목걸이/ 손잡이

③ 일부 타동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도구’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더듬이/ 재떨이/ 바람막이

ㄴ. ‘-이’²⁸⁾

일부 상태성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 ‘그 상태의 척도’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깊이, 높이, 길이, 넓이

ㄷ. ‘-이’²⁹⁾

① 겉모양이나 속성을 더하는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속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애꾸눈이/ 절름발이/ 육손이/ 곰배팔이/ 똥똥이/ 멍청이

② 일부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와 용언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만 붙는다. 『젓먹이/ 총잡이/ 구두닦이/ 신문팔이/ 냉마주이

③ 겉모양이나 속성을 더하는 일부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모양이나 속성을 지닌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바둑이/ 얼룩이

④ 동물의 소리나 움직임을 더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소리를 내거나 움직임을 보이는 동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꿀꿀이/ 야옹이/ 거북이/ 땡퐁이

⑤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타동사 ‘살다’의 어간의 결합형 뒤에 붙어 ‘그런 동물 또는 그러한 식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하루살이/ 겨우살이/ 한해살이/ 두해살이

위의 <고려대사전>²⁾의 접사 ‘-이’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이27’은 ‘-이’ 파생어가 “일, 대상, 도구”를 뜻하는 경우이고, ‘-이28’은 형용사에 결합하여 척도명사를 이루는 것이며, ‘-이29’가 결합하면 선행 어기와 관련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에서는 ‘신문팔이’, ‘구두땀이’와 같이 “일 또는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고려대사전>을 따르면, 접미사 ‘-이27’^①이 결합한 경우와 접미사 ‘-이29’^②가 결합한 경우를 분리해야 하며, 하나의 어휘소에서 개별 의미에 따라 둘 이상의 접미사가 결합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고려대사전>의 접사 ‘-이’의 뜻풀이에서는 기존 사전과 달리, 일이나 대상, 도구를 나타내는 접사 ‘-이’와 사람을 나타내는 접사 ‘-이’를 분리하였다. 그러면 위의 ‘신문팔이’, ‘구두땀이’ 등과 같이 다의를 형성하는 경우 각각의 의미는 별개의 접사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김양진·정연주(2008)³⁾에서도 ‘넙마주이’가 ‘~하는 사람 또는 일’로

2)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고려대사전>로,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사전>으로 표기한다.

3) 김양진·정연주(2008: 195)는 유정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가 대상명사나 사건명사를 파생하는 ‘-이’나 척도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와 그 형태론적 조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접미사라고 보았다. 기존 사전과는 달리 접사 ‘-이27’을

해석되는 것은 사건명사에서 유정명사로의 의미 변화를 겪었다고 기술하였다.⁴⁾ <고려대사전>이나 김양진·정연주(2008)에서와 같이 형태적 기준에 따라 접사를 분리하여 기술하였지만 파생어의 의미 형성이 분리 기술된 별개의 접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형태적 근거에 따라 접사를 분리하였으나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 ‘일 또는 사람’으로 해석되는 다의어의 경우, 사전의 뜻풀이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국어 형태론의 파생어 논의는 Hockett(1954)가 분류한 형태론 연구의 두 관점⁵⁾인 항목 배열(item-arrangement) 방식과 항목 과정(item-process) 방식 중 항목 배열 방식을 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항목 배열 방식의 관점에서 형태론의 기본 단위는 형태소이며 형태소의 조합(concatenation)으로 단어를 형성하고 복합어의 의미도 형태소의 합으로 다룬다. 문장의 의미가 단어들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듯이 복합어의 의미도 형태소의 합으로 다루었다. 형태소 기반의 접근법에서는 접사도 어휘소와 같이 구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Booij 2005). 그러나 이러한 관점으로는 [N+V-이] 명사와 같이 다양한 의미 부류로 해석되거나 다의적인 파생명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이나 대상,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와 ‘-이29’의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를 분리하였다. 기존 국어사전 등에서는 동사 어간에 접미하는 접사와 명사 어간에 접미하는 접사 등 어기를 중심으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 4) ‘때밀이’도 먼저 때를 미는 사람(행위자)의 의미와 그 행위의 수단인 목욕용 수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의 의미에서 후자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때밀이의 단어 형성 과정에서 마련된 의미인데 언어 사용의 환경에서 전자가 먼저 적용의 대상을 얻고, 후자가 나중에 적용의 대상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창섭 1996: 152).
- 5) 형태론 기술 방법 중, 항목 배열 방식은 형태소 기반 형태론, 항목 과정 방식은 단어 기반 형태론으로 볼 수 있다. 항목 배열 방식의 관점에서 형태론의 기본 단위는 형태소이며 형태소의 조합(concatenation)으로 단어를 형성하고 복합어의 의미도 형태소의 합으로 다룬다. 한편, 단어(lexeme) 기반 형태론에 따르면 접사는 어휘항목(lexical item)이 아니며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일부분으로 참여한다. 파생어 형성 과정은 어휘소(lexeme)에 대하여 접사의 첨가와 의미의 변화라는 형태적 의미적 작용으로 상세화된다.(Booij 2005: 11).

앞서 ‘신문팔이’, ‘소매치기’와 같이 용언에서 파생되는 명사 중 ‘고기잡이’는 행위와 사람, ‘줄넘기’는 행위와 도구, ‘후물림’은 행위와 대상 등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경우 항목 배열 방식 즉 형태소 기반 접근법으로 처리하면, 하나의 어휘소에 둘 이상의 접사가 결합하여 어휘소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휘소가 형성된 뒤에 의미 전이 및 확장이 일어나 다의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문제는 접사 자체가 다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파생어를 형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형태소가 일대일 대응된다면 형태소의 조합(concatenation)으로 파생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의어의 경우 형태소의 조합으로 관련된 두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은 접사의 의미만으로 파생어의 다의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파생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사 중심의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어사전의 의미 나열적인 접사 뜻풀이만으로는 다의적인 파생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결국 기존의 논의 방식인 형태소 기반의 형태론으로는 파생어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파생어와 구문 형태론

이 논문에서는 형태론의 항목 배열 방식, 형태소 기반의 접근법 대신에 항목 과정 방식, 어휘소 기반 접근법을 따른다. 즉, 동사에서 명사로의 품사 범주의 전환이 일어나는 형태론적인 과정이 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 파생접미사는 ‘-이’, ‘-음’, ‘-기’ 등이다. 접미사가 구체적인 어휘 의미를

떠고 있어서 파생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미사는 파생 과정에 포함되는 추상적인 의미만을 띠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접미사는 동사에서 명사로의 품사 범주를 전환하며 파생명사의 의미는 어기인 동사와 관련하여 구체 의미가 실현되는 것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구문 문법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장에서는 구문 형태론(Booij 2010)을 도입하여 국어의 파생어의 의미 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구문 문법(Cognitive Grammar)에서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구성 성분의 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구문은 형태와 의미의 쌍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이를 파생어에 적용하면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와 접사의 의미 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문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형태적 속어(idiom)로도 간주할 수 있다.⁶⁾ 예를 들어 ‘-이 파생명사’는 스키마의 형태로 머릿속 사전에 저장되며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인 동사 구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파생어 의미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하였던 것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파생명사는 접사 ‘-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스키마에 의해서 형성된다. 언어 학습자는 개별 단어와 단어 형태를 수동태 구문과 같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한다. 추

6) Table1.1. Examples of constructions varying in size and complexity(Booij 2010: 15).

| | example |
|-------------------------|--|
| Word | tentacle, gangster, the |
| Word(partially filled) | post-N, V-ing |
| Complex word | textbook, drive-in |
| Idiom(filled) | like a bat out of hell |
| Idiom(partially filled) | believe <one's> ears/eyes |
| Ditransitive | Subj V Obj1 Obj2(e.g. he baked her a muffin) |

상적 스키마는 단어 층위에서의 구문적 숙어의 역할을 한다. 개별 단어 층위에서 다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하위 스키마가 포함된다. 유추는 기존 단어 모델을 기반으로 단어를 만들 때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다(Booij 2010: 11).

구문 형태론에서는 단어 형성이 계층적 어휘부에서 추상화의 정도가 다양한 형태적 스키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단어 형성 패턴은 형태와 의미 사이의 체계적으로 관련 있는 복합어의 집합을 일반화하여 추상화한 스키마로 볼 수 있다. 이 스키마는 새로운 복합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명세화할 수 있다. 특정 접사가 사용된 단어 형성 패턴은 변형인 어간과 명세화된 접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론적 구문이 된다.

예를 들어, $[[X]_V \text{ 이}]_N$ ‘V 하는 것’은 국어에서 용언 파생명사를 생성하는 스키마로, 부분적으로 어휘적으로 명세화된 생산적인 패턴이다. 이 스키마는 어휘부에 등재된 ‘-이’ 파생 명사에 존재하는 형태와 의미를 일반화한 것이다. 새로운 ‘-이’ 파생 명사는 기존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어에 의해 즉, 유추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스키마에 기초한 것이다. 새로운 단어는 동사에 의해 스키마에서 변형 X가 대체되면서 형성된다. 이를 통합(unification)이라고 한다. 이 스키마는 예를 들면, 동사 ‘벌다’를 통합하여 파생 명사 ‘벌이’를 도출한다.

구문적 숙어는 추상적 구문 스키마로, 형태구조와 의미 구조 사이의 쌍을 표상하는 계층적 어휘부의 일부이고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것 사이의 중간 층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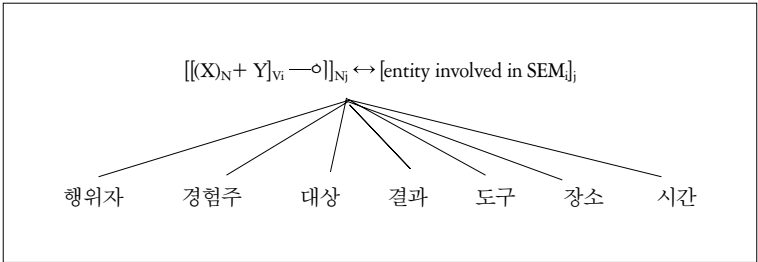
스키마는 어휘부에 등재된 동사 파생명사에 존재하는 형태와 의미를 일반화한 것이다. 새로운 파생 명사는 접사 ‘-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스키마에 의해서 형성된다. 새 단어는 구체 동사를 가진 스키마에서 변형 X를 대신하고 통합에 의하여 형성된다.

스키마는 단어 형성 규칙과 유사해 보인다. 추상적 스키마와 단어 형성

규칙 모두 단어 기반 접근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추상적인 패턴 즉, 규칙이나 스키마의 존재를 가정한다. 복합어는 어휘부에서 규칙이나 스키마가 실현된 것이다.⁷⁾

스키마는 단어 층위에서 구문적 숙어이다. 즉, 단어 층위 구문에서 고정된 위치를 가진다. 구문적 숙어의 의미는 명세화되어 있어서 그 의미는 구문 전체의 속성이며, 접사의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접사는 동사 어기와 함께 명사를 형성한다.

국어의 ‘-이’ 파생명사를 구문 형태론의 스키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명사 동사의 복합 어간에 ‘-이’가 접미한 경우 동사와 관련된 의미의 명사를 파생한다. 이 스키마에서 동사는 변항이며 접사는 고정되어 있으나 접사에는 품사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실체>(entity type) 유형으로는 행위자, 경험주, 대상, 결과, 도구, 장소, 시간으로 실현되며, <사건> 및 <상태> 유형의 명사도 실현된다.



〈그림 1〉 ‘-이’ 파생명사의 스키마

7) 국어연구에서 단어 형성에 관한 규칙과 유추에 대한 논의는 채현식(1999, 200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oij(2010)의 구문 형태론에서는 단어들의 계열 관계에 따라 추상적 스키마를 형성하고 여기서 단어형성이 일어난다고 본다. 추상적 스키마는 단어형성규칙과 유사하고 유추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유추의 모델에서는 기존의 단어 또는 유추의 틀에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채현식(2000:82)에 따르면 규칙은 독립된 표상을 지니고, 유추의 틀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필요가 생겼을 때 기존의 단어들을 참고하면서 순간적으로 생겨난다.

다음의 ‘-이’ 파생명사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자.⁸⁾

(4)

ㄱ. <실체>

<행위자> 젓먹이, 왼손잡이, 총잡이

<경험주>싱겁이, 안타깝이

<결과물> 구이, 뼈뜬이, 발말이, 김말이

<대상> 먹이, 미단이, 여단이, 손잡이, 개구멍받이

<도구> 먼지떨이, 손톱깎이, 턱받이, 재떨이, 책꽂이, 옷걸이

<장소> 바람받이, 물굽이

<시간> 달구리(닭울이)

ㄴ. <사건>

가을걷이, 날받이, 마구잡이, 명석말이, 집들이, 셋방살이, 논갈이
물갈이, 화풀이, 원풀이, 봄맞이, 턱걸이, 털갈이

ㄷ. <사건>과 <실체>의 복합 유형

<행위, 행위자> 고기잡이, 구두닦이, 냉마주이, 신문팔이, 품팔이,
하루살이

<행위, 행위자, 도구> 때밀이

<행위, 결과> 꽃꽂이

<행위, 대상> 떨이

<행위, 도구> 손씻이, 입씻이

<행위, 시간> 해돋이

<행위, 행위자, 장소, 시간, 도구> 이슬받이

‘-이’ 파생명사는 <실체>뿐 아니라 <사건> 명사도 파생하며 <실체>와 <사건>이 복합된 다의어로도 실현된다. 이것은 <실체> 유형에서 보이는 다양한 의미는 접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와 접사와의 관련성에 의한 것이다. 즉, 어기인 동사의 사건 구조의 참여자 중 하나인 것이

8) 본고에서는 Lyons(1977)에 따라 명사를 <실체>, <사건>, <상태>, <추상>으로 분류하였다. 파생명사에서는 <실체>, <사건>, <상태>로 의미 유형이 분류되었다.

다. 파생 명사의 의미를 여기인 동사 구문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⁹⁾¹⁰⁾

먼저 <사건>과 <실체>가 복합된 유형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고기 잡이’는 문맥에 따라 행위 또는 행위자로 해석된다. 이는 어기를 통해 ‘X가 고기 잡다’라는 구문이 환기되고 파생의 과정을 통해 동사 구문을 대상화하여 명사로 행위를 지시하거나 또는 동사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의 참여자인 X를 파생명사로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X는 행위자의 의미로 실현된다. 여기인 동사에 의해서 환기되는 구문에서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의 참여자(논항)의 의미역이 바로 파생 명사의 가능한 의미일 것이다.¹¹⁾

<실체> 유형 중 경험주를 나타내는 ‘싱겁이’, ‘안타까비’ 등은 여기인 ‘싱겁-’, ‘안타깝-’ 등이 ‘X-가 싱겁-’, 또는 ‘X-가 안타깝-’ 등 자동사 구문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파생어 또한 X의 의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싱겁이’, ‘안타까비’는 여기인 ‘X-가 싱겁-’, ‘X-가 안타깝-’의 X에 해당하는 경험주 등이 명사로 실현된 것이다. 이것은 접사에 의해서 파생명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기의 구문에서 구문의 참여자 중 하나를 명사로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 범주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9) 시정곤(1995, 1997) 등에서는 [N-V-이] 단어 형성을 통사 규칙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동사와 선행 명사 사이가 의미역 관계로 맺어져 있고 그 의미역 논항 관계로부터 통사적 성분 관계가 도출되므로 이들 단어의 내부에 존재하는 의미역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광주(2000)에서는 명사+동사+접사형 파생명사를 그 구성요소인 명사와 동사 사이의 통합 관계에 따라 목적어-타동사나 주어-능격 동사, 부사어-동사 관계로 하위 구분하였다.

10) Grimshaw(2011: 1294)는 영어에서 용언 파생 명사류(deverbal nominals)를 일반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류와 사건 및 사실 명사류로 나누었다. 다시 일반 개체(ordinary individuals)를 지시하는 명사류는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참여자 명사류(participant nominals)로, 관련된 동사에 의해서 기술되는 사건의 참여자에 대응한다. 둘째는 결과 명사류(result nominals)로, 사건의 결과를 칭한다. 셋째는 나머지 범주(residual category)로, 의미의 표류를 겪어 어기와 그 의미가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11) 차준경(2011) 참조.

예를 들어, ‘이슬받이’는 행위, 행위자, 장소, 시간, 도구 등의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들은 은유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단지 동사가 지시하는 사건 구조의 참여자로서 행위자, 장소, 시간, 도구 등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환유에 의한 것으로 ‘-이’ 파생명사의 다의는 환유적인 의미 확장이다. 이와 같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은 사건에 포함되는 개체 중의 하나를 지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구문 형태론의 논의에 따라 ‘-이’ 파생명사의 다의를 설명하였다. 새로운 파생 명사는 접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스키마에 의해서 형성된다. 추상적 스키마는 단어 층위에서 구문적 숙어의 역할을 한다. 개별 단어 층위에서 다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스키마가 포함된다. 또한 ‘-이’ 파생 명사와 같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은 그 의미가 어기인 동사구문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즉, 구문 형태론의 논의를 따라서 추상적 스키마를 상정했으며, 그 다의는 어기인 동사 구문과의 관련성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4. 국어의 ‘-음’, ‘-기’ 파생 명사

앞서 ‘-이’ 파생명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음’, ‘-기’ 파생 명사에 대하여 이들이 ‘-이’ 파생명사와 같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음’과 ‘-기’는 동사나 형용사를 어기로 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음’과 ‘-기’ 파생어도 ‘-이’ 파생어와 같이 다양한 부류의 명사를 파생한다. 또한 이들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음’은 어휘적 의미는 없으며 통사 범주를 전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김창섭 1996).¹²⁾ 어기가 나타내는 동작과 상태를 지시 대상이 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일부 ‘-음’ 파생 명사는 사람, 시간, 대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예외적이고 비전형적인 것으로 다루어졌다. 다음의 <고려대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자.

(6) -음7

- ①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렇게 하는 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갈음/놀음/물음/걸음
- ②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 동작이나 행위와 관련된 추상적 상태'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깨달음/울음/웃음/줄음/죽음
- ③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러한 결과로 생긴 것'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얼음/그을음/묶음
- ④ 자음으로 끝나는 일부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그러한 상태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닭음/젊음/수줍음

‘-음’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사건, 상태 결과물을 뜻하는 명사를 만드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즉, 접사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명사를 파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일부 ‘-음’ 파생어는 ‘책상물림(사람)’, ‘보리누름(시간)’, ‘받침, 거름(수단)’, ‘그림, 묶음, 얼음, 빼침, 튀김, 조림, 찜’(결과물), ‘속가름, 술적심, 후물림(사물, 행위)’, ‘사람됨, 인간됨, 마음가짐, 몸가짐, 옷차림’(모양, 방식)’ 등으로 해석되어, 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음’ 파생어의 다양한 의미를 기술하지 못하였다.

(7) -기29

- ① 일부 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렇게 하는 일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걸기/쓰기/더하기/말하기

12) 시정곤(1999)는 ‘X+음’의 단어를 파생어가 아니라 통사구성에서 동사나 형용사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하나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음’의 주된 역할은 문법 범주를 바꾸는 것이고 전체 의미는 선행어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 ② 일부 동사 혹은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척도의 뜻을 더하여 명사는 만드는 말. ㉠크기 / 밝기 / 세기 / 기울기

(8) -기30

- ① 일부 동사 뒤에 붙어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소매치기 / 안잠자기 / 양치기
 ② 일부 동사의 뒤에 붙어 그러한 일에 쓰이는 물건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돋보기 / 비늘굽기 / 쓰레받기 / 줄넘기 / 흙받기

‘-기’도 ‘-기29’는 사건과 상태 ‘-기30’은 사람 또는 물건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든다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행위와 도구를 나타내는 ‘집짓기’와 ‘줄넘기’, 행위와 행위자를 나타내는 ‘소매치기’와 ‘양치기’ 등은 위 사전의 뜻풀이로는 각각의 접사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파생명사와 같은 방법으로 행위를 나타낼 때에는 ‘-기29’가 결합하고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기30’이 결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파생어가 형성된 다음에 의미 확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파생어의 다의성은 국어사전의 뜻풀이 기술만으로 또는 접사 중심의 접근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음’ 파생어의 의미를 의미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음’ 파생어는 <실체>, <상태>, <사건> 등의 의미 유형을 갖고 있으며 다의어로는 <사건>과 <실체>가 복합된 유형이 있다.

(9)

ㄱ. <실체>

- <사람> 책상물림,
 <시간> 보리누름,

<대상, 결과물> 받침, 거름, 그림, 그을음, 묶음, 맞춤, 얼음, 짐,
짊, 주름, 튀김, 조림

ㄴ. <상태>

잠, 꿈, 삶, 굶주림, 뉘우침, 다짐, 믿음
간지름, 괴로움, 귀염, 그리움, 노여움, 두려움, 무서움, 미움, 반가
움, 부끄러움, 설음, 슬픔, 쓰라림, 아픔, 외로움, 즐거움, 서글픔,
기쁨, 어둠,
<상태, 태도> 사람됨, 마음가짐, 몸가짐

ㄷ. <사건>

춤, 숨, 걸음, 땀, 뜸, 웃음, 보살핌, 되새김, 비웃음, 걸음, 물음, 보
탸, 새김
낮가림, 눈가림, 말막음, 목놀림, 몸놀림, 앞가림, 자리바꿈, 무릎
꿇림, 탈바꿈, 눈겨름, 보쌈, 가을뿌림, 말다툼, 억지웃음

ㄹ. <사건>과 <실체>의 복합 유형

<행위, 내용> 가르침, 놀림, 발뺨
<행위, 단체> 모임
<행위, 상태> 수줍음, 게으름
<행위, 대상> 입가심, 발돋움
<행위, 모양> 팔놀림
<행위, 소리> 땅울림, 산울림

여기서 위의 ‘-음’ 파생어는 스키마 [(X)_N+Y]_V -음]_N 을 상징할 수 있
으며 여기와 관련된 동사 구문에서 파생어의 의미가 도출된다. <실체>
를 나타내는 ‘그림, 거름, 그을음’ 등은 ‘X가 Y를 {그리다, 거르다}’의 구
문이 환기되고 ‘그림’, ‘그을음’ 등이 행위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을 지시할
때 구체물의 의미가 실현된다. <상태>를 나타내는 ‘간지름, 괴로움’ 등은
‘X가 {간지럽다, 괴롭다}’의 구문이 환기되고, 형용사 구문을 대상화하여
명사형인 ‘간지름, 괴로움’ 등으로 상태를 나타낸다.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는 ‘보살핌’, ‘되새김’ 등에서 ‘X가 Y를 {보살
피다, 되새기다}’ 등의 구문이 환기되고 파생어를 형성하면서 동사 구문

이 지시하는 사건을 대상화하여 ‘~하는 일’로 해석된다.

<사건>과 <실체>가 복합된 유형은 ‘가르침, 발뺌’ 등에서 행위와 내용의 의미가 실현된다. 이때 동사 구문인 ‘X가 Y를 가르치다, Y에서 발을 빼다’ 등의 구문이 환기되고 동사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을 대상화하면, 행위를 뜻하거나 파생어를 형성하여 그 내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과 <상태>가 복합된 유형은 ‘수줍음’, ‘게으름’과 같이 형용사 구문 ‘X가 {수줍다. 게으르다}’의 구문이 실현되고 여기서 파생어가 형성되면서 상태를 나타내는 ‘수줍음’, ‘게으름’이 실현된다.

<사건>과 <실체>가 복합된 ‘입가심’, ‘발돋움’ 등에서는 ‘X가 {입(을) 가시다, 발(을) 돋다}’와 같은 구문에서 행위의 의미가 실현되고, ‘입가심’, ‘발돋움’ 등으로 행위의 결과물을 지시할 때 실체의 의미가 실현된다.

다음 ‘-기’ 파생어의 의미 유형을 살펴보자.

(10)

ㄱ. <실체>

<행위자> 안잠자기, 목매기

<대상 또는 결과> 장내기, 되내기, 덧보기, 봄베기, 뺑튀기

<도구> 돋보기, 뚱받기, 흙받기, 아래닿기

ㄴ. <사건>

가보잡기, 글짓기, 널뛰기, 김매기, 누에치기, 돈치기, 딱지치기, 목조르기, 보물찾기, 술래잡기, 숨쉬기, 썰매타기, 줄다리기, 줄타기, 쥐잡기, 짝짓기, 창던지기, 가로쓰기, 가을심기, 높이뛰기, 돌려짓기, 마주나기, 사이짓기, 이어달리기

ㄷ. <사건>과 <실체>의 복합 유형

<행위, 행위자> 소매치기, 양치기, 차치기, 먼산바라기, 젓떼기, 멀리보기

<행위 도구> 집짓기, 줄넘기

ㄹ. <상태>

크기, 세기, 빠르기, 굵기, 밝기, 잦기, 굳기, 기울기

‘-기’ 파생어는 $[(X)_N + Y]_{V-기}]_N$ 을 스키마로 상정할 수 있으며 여기와 관련된 동사 구문에서 파생어의 의미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10ㄷ)의 ‘소매치기, 양치기, 차치기’ 등 <사건>과 <실체>가 복합된 유형을 살펴보자.

여기서 ‘양치기’는 문맥에 따라 행위 또는 행위자로 해석된다. 이는 어기를 통해 ‘X-가 양 치다’라는 구문이 환기되고 파생의 과정을 통해 동사 구문을 대상화하여 명사로 행위를 지시하거나 또는 동사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의 참여자인 X를 파생명사로 지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X는 행위자의 의미로 실현된다. 여기인 동사에 의해서 환기되는 구문에서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의 참여자(논항)의 의미역이 바로 파생명사의 가능한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의미라고 하여 모두 파생명사의 의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문맥적 필요성이 있어야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10ㄴ)의 <사건> 유형으로만 실현되는 명사들이다. 어기의 구문이 환기되면서 파생어 형성 과정을 통해 동사 구문을 대상화하여 명사로 사건,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널뛰기, 김매기, 누에치기’ 등은 ‘X가 {널(을) 뛰다, 김(을) 매다, 누에(를)치다}’ 등의 구문이 환기되고 파생어를 형성하면서 동사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을 대상화하여 ‘~하는 일’로 해석된다.

(10ㄱ)의 <실체> 유형으로만 실현되는 명사들은 비록 <사건>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인 동사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각각의 의미는 바로 사건 구조의 참여자의 의미에 해당한다. 즉, 동사 파생명사에는 여기인 동사구문이 지시하는 사건 구조가 있으며 이 사건 구조와 관련하여 동사파생명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의 의미로 실현되는 ‘안잠자기’,¹³⁾ ‘목매기’¹⁴⁾ 등은 어기를 통해

X가 {안잠 자다, 목 매다}라는 구문이 환기되고 파생의 과정을 통해서 동사 구문을 대상화하여 명사로 행위자를 지시하는 것이다. 또, ‘장내기¹³⁾’ 등은 여기에서 ‘X가 Y를 장(場),(에) 내다’ 등의 구문이 환기되고 파생어를 형성하면서 동사 구문이 지시하는 사건의 결과물의 의미가 실현된다. 도구의 의미로 실현되는 ‘흙받기, 아래닿기’ 등은 {X가 Z로 흙 받다. 아래(에) 닿다}의 구문이 환기되며 도구에 해당하는 Z를 파생어로 지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3장의 ‘-이’ 파생어에 대해 추상적인 스키마를 상정하고 의미 유형을 제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음’, ‘-기’ 파생명사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스키마를 상정하고 의미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정도의 차는 있으나 <실체>, <사건>, <상태> 유형의 명사를 파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비슷한 유형의 명사를 파생하게 된 것은 모두 용언에서 파생된 명사라는 점이다. 이들은 의미 기능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거나 용언에서 파생된 명사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사건> 부류에 속하는 단일어 명사와도 유사한 의미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¹⁴⁾ 이는 단일어 파생어의 구분 없이 <사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의 체계적 다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파생어에서 접사에 상관없이 이러한 의미 유형을 띠는 것으로 보아 접사는 용언 파생명사에서 어휘적인 의미 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안잠 「명」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안잠자기. 『누구더러 반말이야. 그래 네 눈엔 내가 너의 집 {안잠이나} 부엌데기로 뵈단 말이나?』《심훈, 영원의 미소》§.

14) 목매기-송아지 「명」 아직 코뚜레를 꿰지 않고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 ≒목매기.

15) 장-내기¹⁾ 場- 「명」 1) 주로 수공업자가 시장에 내다가 팔려고 만든 물건. 2) 대강대강 만든 물건. 3) =장돌뱅이. #참가게내기.

16) 차준경(2011)에서 ‘-이’ 파생 명사의 다의 유형이 단일어 사건 명사와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국어사전의 접사 뜻풀이를 통해 ‘-이’, ‘-음’, ‘-기’ 파생 명사의 개별 의미를 풀이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파생어의 다의를 모두 기술하고 이를 통해 접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파생어의 다의를 접사의 의미만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기존 국어 형태론 논의인 항목 배열 방식, 형태소 기반 연구 방식을 따르는 대신 항목 과정 방식, 단어 기반 방식을 따르고자 하였다.

또한, 구문 형태론(Booij 2010)에 따르면 파생어도 일종의 구문(construction)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파생어의 의미는 어기와 접사의 의미 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즉, 새로운 파생 명사는 접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스키마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다의적인 파생어를 설명하기 위해 스키마를 상정하며, 하위 스키마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용언 파생명사의 의미를 어기와 동사 구문과의 관계에서 파악하고 그 의미를 밝혔다. 용언에서 파생된 명사인 ‘-이’, ‘-음’, ‘-기’는 모두 어기인 동사 구문과 파생어의 의미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살펴본 것이다. 즉, 파생어를 형성하는 추상적 스키마가 존재하고 특히 용언 파생명사에서 어기인 동사의 사건 구조의 참여자 또는 결과물이 바로 용언 파생명사의 의미가 됨을 밝혔다.

* 게재 이월 논문(41집)

논문투고일 : 2012년 8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2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8일

■ 참고문헌

1. 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 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2. 단행본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시정근(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이희승(1955),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차준경(2009), 『국어 명사의 다의 현상 연구』, 제이앤씨.

최현배(1961), 『우리말본(세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하치근(1993), 『국어 파생 형태론(개정증보판)』, 남명문화사.

3. 논문

고광주(2000), 「‘명사 + 동사 + 접사’형 파생명사의 형성과정」, 『한국어학』 12.

_____(2002), 「‘명사+동사’형 합성동사의 형성 원리」, 『우리어문연구』 19.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국어학회.

김양진 · 정연주(2008), 「접미사 ‘-이’의 동음이의 구별 방안」, 『한국사전학』 12.

나은미(2006), 「접미사 -음, -기, 범주와 의미에 대한 연구」, 『한성어문학』 25.

송철의(1985),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어기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시정근(1994), 「‘해돋이’와 ‘돈벌이’ 형의 단어 형성」, 『한국어학』 1, 한국어학회.

_____(1995), 「어휘 결합과 의미 해석」, 『언어』 20.

_____(1997), 「인칭접미사의 의미구조에 대하여」,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_____(1999 7), 「X+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형태론』 1-1.

_____(1999),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2.

연재훈(2001), 「이른바 ‘고기잡이’류 통합합성어의 단어형성에 대한 문제」, 『형태론』 3-2.

이익섭(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이재인(1989), 「-이 명사의 형태론」, 『이정 정연찬 선생 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III』, 탑출판사.

_____(1993), 「국어 파생어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 『서강어문』 9, 서강어문학회.

정주리(2000), 「구성 문법적 접근에 의한 문장 의미 연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차준경(2010), 「어휘 의미 특성을 반영한 의미 기술-사건 명사의 다의를 중심으로-」, 『한글』 288, 한글학회.

_____(2011), 「-이 파생명사의 다의 형성」, 『한국어의미학』 34.

채현식(1999), 「조어론의 규칙과 표시」, 『형태론』 1권 1호.

_____(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하치근(1996), 「국어 이름씨 파생 접사 ‘-이’, ‘-음’, ‘-기’의 특성 연구」, 『언어(언어교육)』 11.

4. 국외 자료

Aronoff, M. and Kirsten Fudeman(2005), *What is Morphology?*, Blackwell Publishing.

Aron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IT Press.

Booij, Geert(2005), *The Grammar of Words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Morp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10), *Construction Morp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Grimshaw, Jane(2011), Deverbal nominalization, von Heusinger, Maienborn and Portner(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vol.2, 1292-1313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Goldberg, Adele, E.(1995), *Construction Grammar*, 손영숙 · 정주리 역(2004). 『구문 문법』, 한국문화사.

Haspelmath, Martin(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Hockett, C(1954), "Two models of grammatical description." *Word* 210: 31.

Lieber, Rochelle(2004), *Morphology and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ohn(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파생명사의 의미 형성 원리

— 구문 형태론적 접근 —

차 준 경

이 논문은 국어의 용언 파생명사의 의미 형성에 대하여 인지언어학의 구문 형태론(Booij 2010)의 관점을 적용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어의 파생 명사 중 ‘-이’, ‘-음’, ‘-기’에 의해 파생된 명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에서 명사로 품사 범주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파생어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실현된다. 그동안 국어 파생어 연구에서는 접사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접사 중심의 연구 대신에 어기 단어와 파생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파생어의 의미 형성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파생어의 의미 연구를 위해 인지 언어학의 구문 문법을 채용한다. 구문 문법의 관점에서 파생어도 일종의 구문을 형성하여 형태와 의미의 쌍을 형성한다. 또한 파생어 단어 형성 패턴에서 추상적 스키마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 스키마에 의해서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고 새로운 단어 의미도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용언 파생명사의 의미는 용언의 사건 구조의 참여자가 바로 파생 명사의 의미로 실현되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구문 형태론, 추상적 스키마, 용언 파생명사 ‘-이’, ‘-음’, ‘-기’, 어휘소 기반 접근, 동사 사건 구조

The Meaning of Korean Deverbal Nouns in Cognitive Morphology Approach

Cha Joon Kyung*

This study looked into the semantic formation of Korean derivational nouns using cognitive morphology(Booij 2010) from the field of cognitive linguistics. In particular, derivational nouns ending with suffixes -yi, -eum, and -ki were analyzed through principles of semantic formation. Derived from verbs or adjectives, these derivational nouns changed word class and had multiple meanings. Studies on Korean derivational words have so far focused on distinguishing the meaning of affixes from their functions, leaving the semantics of derivational words insufficiently examined. Instead of focusing on affixes,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semantic formation principle of derivational words by looking in to th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base words and derivational words. This was done by adopting cognitive grammar to explain the semantic formation of derivational words. Analyzed from a perspective of construction grammar, derivational words formed a construction pair of form and meaning. Within patterns of

* Korea University.

derivational word formation, abstract schema could be introduced which controlled the meaning of a word and creating new meanings. It was also noted that one of entities in the verb's event structure became the meaning of the Korean deverbal nouns.

Key words: cognitive morphology, abstract schema, deverbal nouns in '-yi(으)',
'-eum(음)', '-ki(기)', lexeme based approach, verb event structure